

좋은 문학의 표현 방식 탐구

개요

서론

본론

1. 좋은 문학이란?

1.1. 문학(文學)의 정의

1.2. 문학의 의의와 좋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2. 다양한 문학의 비교

2.1. 근대 이전 서구 문학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2.2. 근대 서구 문학 '제인 에어'(샬롯 브론테)

2.3. 근대 이전 한국 문학 '홍길동전'(허균)

2.4. 현대 한국 문학 '엄마의 말뚝'(박완서)

결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학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엔 엄마가 태교 목적으로 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유아기 때에도 엄마가 책을 읽어주며, 아동기 때 부터는 독서교육을 통해 아동 스스로 문학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기도 하고,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책 등의 문학을 도서, 영상등으로 다양하게 접하게 된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다양한 문학들을 읽는 것만으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공감하기도 하며,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인격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은 책, TV, 신문 등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삶의 여러 곳에 녹아 있다. 문학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속에 녹아있고, 문학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된다. 문학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나누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사상, 감정 그리고 취미 등을 표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세상의 다양하고도 많은 문학들 중에서 좋은 문학을 찾는다. 방대하고도 많은 문학들 사이에서 보물같은 좋은 문학을 보고 싶은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많은 소셜미디어 속에서는 심심찮게 문학을 추천하는 블로그나, 이벤트 등의 사회적 활동도 쉽게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학들 속에서 좋은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사람들은 좋은 문학을 찾아 읽고 싶어하는 것인도 생각하며 좋은 문학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좋은 문학이란?

1.1. 문학(文學)의 정의

문학(文學)의 정의

문학(文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삶의 가치있는 경험을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언어로 짜임새 있게 표현한 예술이라 정의하고 있다. 문학의 갈래는 크게 서정 · 서사 · 극으로 나누고 여기에 교술을 추가하기도 한다. 문학의 대표적인 양식으로는 시 · 소설 · 희곡 · 수필이 있다. 또 문학의 다른 의미로는 지난날의 학예 · 경사 · 시문을 총칭하던 말 또는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르던 말이라 정의되고 있다.

즉, 정리해보면 문학은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정리하여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文學)은 언어예술이다. 그렇기에 문학은 언제 어디서든지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다. 문학은, 예술 행위인 것이다. 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문학’이라는 단어의 ‘문’은 글을 뜻하고, ‘학’은 학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문학이란 용어의 어원에 따라 대상의 성격이 정확하게 규정되지는 않기에 언어예술인 문학을 글과 학문이라고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문학평론가인 김현은 문학은 인간 정신을 표현하는 한 형태로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문학의 기원을 따진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따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말했다.

문학작품은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독자는 작품 속에 이끌려 문학과 독자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발표함으로써 문학의 사용이 정치·사회적 현실을 혁신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였으며, 이후 사르트르라는 이름은 ‘참여문학’이라는 개념과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왔다. 문학은 읽기의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문학으로서 존재할 뿐이라 장 폴 사르트르는 말한다. 또한 책읽기는 슬한 가정, 꿈, 각성, 희망, 실망으로 이뤄진다고 말하며, 독자는 항상 오직 개연성 밖에 없는 미래를 향해서 자기가 읽고 있는 문장보다 앞서간다고 말한다.

넓은의미에서의 문학을 살펴보자면, 문학은 전달되는 언어이다. 문학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문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었고, 이전 세대에도 있었으며, 윗세대, 윗세대 끝없이 올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부터 존재해왔다고 예측 할 수 있다. 이는 아주 오래전 부터 내려오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 존재하는 걸로 보아 문학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문학은 언어라는 매개를 사용하여 이웃에서 이웃으로 또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며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문학은 언어라는 매개를 사용하여 이웃에서 이웃으로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읽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예술 행위라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다.

1.2. 문학의 의의와 좋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을 읽고 보고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문학을 접하는 이유는 각기 다를 것이다.

8-90년대의 정서가 그리운 사람은 8-90년대의 정서가 풍부한 문학을 읽을 것이고, 더운 여름날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귀신이야기 등 등을 서늘하게 만들 수 있는 문학을 읽을 것이며, 대리 설렘을 느끼고 싶은 10-20대 여자들은 로맨스 문학을 읽을 것이며, 영웅이되고 싶은 어린 아이들은 전쟁 또는 왕자님이 공주님을 구출하는 문학을 재미있게 읽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진 채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문학을 접하고 있다.

독자가 문학을 접할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문학을 즐길 수 있으며 문학의 모든 내용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문학을 즐길 수 있다.

앞서 말한 예시와 같이 8-90년대에 나온 영화를 보며 옛 사상과 옛 감성 그리고 역사를 배울 수 있고, 현대 영화를 통해 현 사회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주인공을 보며 위로받을 수 있는 점들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학을 접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문학을 읽는 것을 넘어 문학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은 문학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이 문학을 찾는 첫번째 이유는, 결국 단순한 흥미와 재미를 넘어, 문학을 접하는 그 시간 동안 개인의 내면 속에서 어떠한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감정의 교류를 통해 개인의 감정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됨을 통해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개인의 니즈 또는 목표에 맞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기에 계속해서 문학을 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문학을 찾는 두번째 이유는, 문학은 사회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본인을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세상이 정해 놓은 선과 규범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창의적이고, 타인이 알 수 없었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으며, 가면을 벗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문학의 내용들은 단순하게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일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주인공이 여러가지의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벌어지는 일을 통해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문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문학을 찾는 이유가 된다 생각된다.

사람들이 문학을 찾는 세번째 이유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위로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문학을 읽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치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가는 주인공을 보며, 누구라도 좌절할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보며, 나와 같이 생각하고 그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며 나 자신을 위로하며 나를 돌아보는, 그렇게 주인공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함께 생각하며 치유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문학을 계속 읽게되는 이유라 생각한다.

2. 다양한 문학의 비교

다양한 문학을 비교함으로써 좋은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허균의 홍길동전’,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총 5가지 소설을 비교하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1. 셰익스피어 -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셰익스피어가 사랑을 강조하는 문학적 요소와 표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절절한 사랑을 잘 녹여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깊고 뜨거운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기에 앞서 로미오와 로잘린의 얇은 사랑을 먼저 표현함으로써 두 사랑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극 중 로미오는 로잘린과 사랑에 빠졌지만, 이는 로잘린에 대한 진정한 애착이나 사랑에 빠진 상태가 아닌, 그냥 그런 사랑이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줄리엣과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로미오와 로잘린의 사랑 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읽게 되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로맨틱 한 사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가문의 이해관계로 인해 모두가 말리는 사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낭만적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기대와 전통을 뛰어넘어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인의 모습을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비극적이고 슬픔과 허무함 등의 감정이 극대화된 결말을 불러 일으킨다. 작품을 읽는 독자들과의 마음은 절절하게 울리고 충격받게 됨으로 작품을 보는 동안 흥미를 느끼게 된다.

줄리엣 - “ 모르고 너무 일찍 보아 버렸고, 알고 보니 너무 늦었네!”

셰익스피어의 소설에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과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시간을 통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짧은 연인들이 4일이란 짧은 시간동안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짧은 시간동안 이별을 겪고, 죽음으로 사랑의 막을 내리는 것으로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셰익스피어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오래된 사랑과 새로운 사랑을 표현하고, 죽음과 탄생, 재앙생성과 결합을 표현하고 있으며, 위험과 죽음을 웃음과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를 읽는 독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읽기에 로미오, 줄리엣 그리고 이외의 모든 인물의 감정까지 세밀하게 살피며 흥미롭게 문학을 볼 수 있다.

2.2. 샬롯 브론테 - 제인에어

샬롯 브론테의 제인에어는 독립적, 능동적, 여자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

제인에어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여성이 가진 불평등한 사회적 위치와 인권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학이다. 당시 영국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는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복종해야했다. 또한 여자는 천사나 마리아와 같이 순결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샬롯 브론테는 이런 사회문화에 대해 반감을 가졌고, 제인이란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을 만들어 냈으므로 당시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독교, 여성에 대한 유희자, 죄인 이미지가 여성을 특수한 억압 상황으로 몰아 넣었음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제인의 대사와 주변 인물들과 작품 속 환경을 통해 녹아냈다. 살론 브론테는 여성을 억압한 특수한 상황을 게이츠헤드에서 살던 제인에어를 통해 보여준다. 게이츠헤드에서 살았던 제인은 온갖 굴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꼈다. 또한, 육체와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존을 통해 남성이 갖는 사회적 세력과 가부장적인 당시 영국 사회를 표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인이 느끼는 감정은 위협과 공포였음을 제인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인은 정당한 자기 방어로 존에게 반항하게 된다. 이에 제인은 붉은 방'에 감금 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남자의 권위를 표현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해야했던 사회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인에어는 어린 소녀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저항하고, 여자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불합리한 문화적 편견을 거부하며 여성의 자아를 확립한 것에 대해 말하며 내면과 외면이 함께 성장되는 내용을 교육, 사랑, 사회로 묶어 표현하고 있다.

서구의 문학인 로미오와 줄리엣과 제인 에어는 각각 진실된 사랑과 당시 사회모습을 비판하는 것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학 작품은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도 좋은 문학, 명작 등의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작품들이다.

2.3. 허균 -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조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홍길동은 홍재상의 아들로 태어는 나지만, 어머니가 천한 노비이므로 서자가 된다. 이로 인해 홍길동은 호부호형하지 못한 채 서자라는 천대를 받으며 성장한다. 이를 참지 못하고 그는 집을 나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선 사회의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를 인식하고 활빈당 활동을 통해 악덕한 부잣집을 습격함으로써 백성들을 구제해 줌으로 영웅 취급 받는다. 이렇게 홍길동은 의적으로 묘사되며 현 사회의 비판을 담았다.

2.4. 박완서 - 엄마의 말뚝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의 사회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의 황폐함과 궁핍함이 잘 묘사되면서 시대적 전형성을 띠고 있다. 엄마의 말뚝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화자의 정신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체와 언어구사로 중년여성의 심리를 세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고, 어머니의 행동에 따라 연상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독특한 구성을 통해 독자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 작가가 설정한 독특한 소설의 구조를 통해 분단의 모순이란 사회, 문화적 맥락도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4가지 문학작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들이다.

위의 4가지 문학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 마무리하려한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샬롯 브론테의 제인에어는 문학적 요소와 문학적 표현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작품의 분위기와 특징이 확실하다.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배경을 비유적으로 설명함에도 생생하게 와 닿고, 직접적인 표현방법이 아닌, 은유적으로 표현함에도 맥락을 가진 채 스토리 진행이 흥미롭게 진행된다. 또한,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함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함을 더욱 극대화 시켜 표현하고, 각 인물이 느끼는 감정선을 세밀하게 표현함으로 작품을 읽는 독자가 흥미를 가지고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샬롯 브론테의 제인에어, 허균의 홍길동전,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은 작품 속에서 사회 모순 및 불합리적인 사회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를 꾸짖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시 사회에서 원하던 인물상과는 대립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기존에 있던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역할도 하며, 억압적인 상황에서 탈출구를 발견함으로 개인의 자유와 성장이 이뤄지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앞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문학은 언제 어디서나 독자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년 전의 문학이 지금에도 좋은 문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현대의 사람들도 100년전에 만들어진 문학을 보았을 때, 공감할 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기에 여전히 지금도 좋은 문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